

# 『佛祖三經』의 성립과 저본에 관한 고찰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Literary Sources and  
Genesis on *Buljosamgyeong*(佛祖三經)

이 상 백 (Lee, Sang-Baek)\*

##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불유교경> |
| 2. 『불조삼경』의 성립      | 3.3 <위산경책> |
| 3. 『불조삼경』의 저본관계 분석 | 4. 결론      |
| 3.1 <불설사십이장경>      | <참고문헌>     |

## < 초 록 >

본고에서 고찰한 『불조삼경(佛祖三經)』은 부처[佛]와 조사[祖]가 남긴 세 가지 경전[三經]의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부처의 가르침인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과 <불유교경(佛遺教經)> 및 위양종(滙仰宗)의 개창 승려 위산 영우(滙山 靈祐, 771~853)의 어록인 <위산경책(滙山警策)>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경전은 모두 출가한 승려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 및 마음가짐에 관한 가르침에 주목을 하고 있다. 『불조삼경』의 전래에는 몽산 덕이(蒙山 德異, 1231~?)의 역할이 컸다.

본고에서는 특히 『불조삼경』의 성립과 저본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불조삼경』의 성립에 관한 논의는 그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관련사료에 근거하여 경전의 성립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불조삼경』의 성립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성립 배경을 파악하였다. 또한 세 구성경전인 <불설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의 저본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저본의 영향을 받아서 『불조삼경』이 성립되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저본의 대상이 된 경전들은 『불조삼경』 이전에 각 경전을 포함하고 있던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과 송대 황제였던 진종(眞宗, 968~1022)의 주석본, 그리고 더 앞선 시기의 둔황사경(敦煌寫經)이다. 이들 경전을 『불조삼경』과 함께 비교하고, 성립배경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불조삼경』이 어떠한 저본을 근거로 하여 성립이 되었는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要語: 佛祖三經,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滙山警策, 蒙山, 守遂, 둔황사경

\* 한국학중앙연구원(sambaltp@daum.net)

접수일: 2012년 12월 3일 최승심사일: 2012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ABSTRACT>

The Buljosamgyeong(佛祖三經) is a book consisting of three sūtras related to both the Buddha and a Buddhist patriarch. The Bulseolsasipyijanggyeong(佛說四十二章經) and Bulyugyogyong(佛遺教經) Sūtras are related to the teachings of the Buddha, while the Weisangyeongchaek(滄山警策) Sūtra was written by Weisan(滄山, 771-853) as an admonition to Buddhist priests. All three sūtras focus on instructing Buddhist priests on right attitude and mind. Mongsan(蒙山, 1231-?)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ntroduction of the Buljosamgyeong(佛祖三經) to the Goryeo Dynasty.

This study especially aims to examine the literary sources for the genesis of the Buljosamgyeong(佛祖三經). The analysis of the creation of the Buljosamgyeong(佛祖三經) was done through various ways. This study examines the scripture's origin, based upon previous studies and relevant historical materials. In addition, it explores specific information using various historical sources, related to the background of the origin of the Buljosamgyeong(佛祖三經). What is more, this study clarifies upon the creation of the Bulseolsasipyijanggyeong(佛說四十二章經)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of its components. The literary sources for the Buljosamgyeong(佛祖三經) are the first Tripitaka Koreana(初雕大藏經), the annotated editions of Emperor Zhenzong(眞宗, 968-1022) of the Song Dynasty and the Buddhist manuscripts of the Dunhuang(敦煌) reg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aforementioned scriptures and by examining its background, this study elaborates on the genesis of the Buljosamgyeong(佛祖三經).

Key words: Buljosamgyeong, Bulseolsasipyijanggyeong, Bulyugyogyong,  
Weisangyeongchaek, Mongsan, Soosoo, Buddhist manuscripts of  
the Dunhuan region

## 1. 서론

「불조삼경(佛祖三經)」은 글자 그대로 부처[佛]와 조사[祖]가 남긴 세 가지 경전[三經]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부처가 남긴 처음과 마지막의 가르침인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과 <불유교경(佛遺教經)> 및 위양종(滙仰宗)의 개창 승려 위산 영우(滙山 靈祐, 771~853)의 어록인 <위산경책(滙山警策)>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경전은 모두 출가한 승려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 및 마음가짐에 관해서 주목하고 있다.

「불조삼경」은 송대의 조동종(曹洞宗) 승려인 대홍 수수(大洪 守遂, 1072~1147)에 의해서 체제를 잡게 되었으며, 이를 이어서 원대 승려인 몽산 덕이(蒙山 德異, 1231~?)가 서문을 쓰고 간행을 한 이후에 고려대에 전래되어 조선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다수의 「불조삼경」이 현존하고 있는데,<sup>1)</sup> 대부분의 현존본이 수수가 주석을 달고 몽산이 서문을 쓰고 간행한 판본계통이다.<sup>2)</sup>

기존의 「불조삼경」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으며, 「불조삼경」에 관한 연

1) 국내에는 14종의 「불조삼경」이 현존하고 있다. 1286년에 몽산이 간행한 초간본은 현존하지 않으나, 고려 판본 3종, 조선전기 판본 8종, 조선후기의 이본계열 3종이 현존한다. 고려 판본은 충혜왕 2년(1341) 정각사(正覺社) 판본과 공민왕 10년(1361) 전주 원암사(圓巖寺) 판본, 그리고 우왕 10년(1384)으로 추정되는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발문 판본이 있다. 원암사 판본은 세종 31년(1449) 회암사(檜岩寺) 판본과 명종 5년(1550) 평양부(平壤府), 선조 2년(1569) 법주사(法住寺) 판본이 그 계통을 따르고 있으며, 목은 이색의 발문 판본은 선조 1년(1568) 석수암(石水庵) 판본, 선조 3년(1570) 안심사(安心寺) 판본이 그 계통을 따르고 있다. 조선시대의 판본으로는 선종 10년(1479) 병풍암(屏風庵) 간행본 계통이 있는데, 선조 6년 법천사(法泉寺) 판본이 이 계통을 따르고 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이본계통으로는 고령 요동(古靈 了童)이 수수가 주석을 한 것에 보주(補註)를 하여 간행한 「불설사십이장경주(佛說四十二章經註)」, 일본본으로 위림 도괘(爲霖 道霈)가 주석을 새롭게 한 「불조삼경지남(佛祖三經指南)」과 우익 지옥(藕益 智旭)이 주석을 하고 <위산경책> 대신 <팔대인각경(八大人覺經)>을 구성한 「불설사십이장경해(佛說四十二章經解)」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상백, “「佛祖三經」의 간행과 판본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석사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2) 참조.

2) 후대본의 경우에는 「불조삼경」의 원형에서 변형된 이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려대에서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 본 경전은 모두 수수가 주석을 한 경전이다.

구보다는 구성경전인 <불설사십이장경>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sup>3)</sup> 『불조삼경』 자체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로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으며,<sup>4)</sup> 『불조삼경』의 간행자인 몽산의 사상적 측면에서 경전을 접근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5)</sup> 그 밖에 여말선초 사경으로 추정되는 『불조삼경합부』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up>6)</sup>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불조삼경』 자체에 관한 서지학적인 종합적 연구가 진행되었다.<sup>7)</sup> 이 연구에서는 『불조삼경』의 성립시기와 그 구성경전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성격과 간행을 통해서 『불조삼경』 구성경전과 타 경전과의 관련성,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서의 간행 배경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간행된 판본 계통을 정리하고 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불조삼경』의 성립에 관한 부분은 연구의 진행이 보다 심화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조삼경』은 세 경전이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의 성립에 관해서 살펴보려면 『불조삼경』의 성립배경과 함께 세 경전의 저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조삼경』의 성립과 저본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아래 『불조삼경』의 성립에 관한 배경을 살펴보고, 각 경전과 저본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어떻게 『불조삼경』이 성립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불조삼경』 판본 자체에 드러나는 정보 및 관련 사료들과 세 구성경전인 <불설사십이장경>

---

3) <불설사십이장경>의 성립에 관한 연구는 岡部和雄, “四十二章經の成立と展開,” 『駒澤大學 佛教學部研究紀要』 25號(1967), 103-118; 문헌학적인 종합적 연구는 簡基益, “《四十二章經》의 文獻與義理研究,” (碩士學位論文, 臺灣 南華大學宗教學研究所, 2008); 『보림전』 속에 포함된 <불설사십이장경>의 연구로는 조현환, “寶林傳 研究,” (석사논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2003), 17-38쪽이 있다. 이 밖에 국어학적인 연구로 金斗燦, “佛說四十二章經의 口訣에 대하여,” 『국어학』 18호(1989), 64-88쪽이 있다.

4) 椎名宏雄, “『仏祖三經註』の成立と諸本,” 『印度學佛教學研究』 第47卷(1998), 28-33; 椎名宏雄, 『宋元版書籍の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1993).

5) 허홍식,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 몽산덕이』 (과주: 창비, 2008)의 ‘제3장 선종과 교종의 통합사상’ 중 ‘Ⅲ. 불조삼경의 불교사상’.

6) 조은정, “혹석사 소장 백지묵서 『불조삼경합부』 사경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학과, 2008).

7) 이상백(2012).

과 <불유교경>, 그리고 <위산경책>과 그 저본이 될 수 있는 경전들을 함께 살펴 보려고 한다. 저본으로 선정한 경전은 「불조삼경」 이전에 각 경전을 포함하고 있던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과 진종(眞宗, 968~1022)의 주석본, 그리고 더 앞선 시기의 돈황사경을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불조삼경」이 어떠한 경전에 근거를 두어 언제 성립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불조삼경」의 서지학적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불조삼경」의 성립

「불조삼경」의 간행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전이 언제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연구자마다 성립시기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근거도 다르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불조삼경」의 성립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왔다. 첫째는 수수가 세 경전을 주석하기 이전부터 「불조삼경」이 있었다는 견해이며,<sup>8)</sup> 둘째는 수수가 세 경전을 주석하면서 「불조삼경」이 성립되었다는 견해다.<sup>9)</sup> 마지막으로 세 경전을 몽산이 편집하여 「불조삼경」으로 이름을 붙이고 간행했다는 견해이다.<sup>10)</sup>

「불조삼경」의 성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료들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면, 수수가 주석을 할 당시

8) 椎名宏雄(1998). 이 논문에서는 위양종의 개창자가 쓴 경전이 <위산경책>이고, 위양종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기를 오대십국시대로 보기 때문에 경전성립시기는 당 후기에서 오대십국 또는 송초에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 編纂所 編, 「(新版)禪學大辭典」(東京:大修館書店, 1996)에서는 송나라의 수수가 처음으로 「불조삼경」을 주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당말·송초에 경전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두 견해는 모두 수수 주석본을 「불조삼경주」라고 칭한다.

9) 岡部和雄(1967), 107; 金斗燦(1989), 64; 조현환(2003), 18. 이 논문들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어떤 사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알기 힘들다.

10) 허홍식(2008), 185.

에 세 경전이 「불조삼경」이 아닌 각각의 경전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수수는) <화엄경>, 부처의 가르침인 여러 경집을 간행하였고, <사십이장경>과 <유교경>, <위산경책>을 주해하였으며, 어록과 계송이 있다.<sup>11)</sup>

위의 글은 수수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홍산수선사탑명(大洪山遂禪師塔銘)>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주해시키는 나오지 않지만 「불조삼경」의 명칭대신 세 가지 경전을 각각 언급하면서 수수가 이 경전들에 주석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수수가 「불조삼경」 각각의 경전에 주석을 행한 시기도 다른데 이는 「불조삼경」에 등장하는 주해자의 명칭이 경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세 경전의 권수면을 살펴보면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에는 ‘운교봉산란약사조 사문 수수(鄖郊鳳山蘭若嗣祖 沙門 守遂)’라는 명칭으로, <위산경책>에는 ‘대홍사조 사문 수수(大洪嗣祖 守遂 禪師)’라는 명칭으로 각각 주석자인 수수를 기재하고 있다. 이 두 명칭은 모두 같은 인물인 수수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살펴 볼 부분은 왜 주석자에 대한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이다. 이는 「보속고승전(補續高僧傳)」에 보면 수수가 소흥(紹興) 5년(1135)부터 대홍산에 머물기 시작하여 소흥 17년(1147)에 입적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sup>12)</sup>

따라서, <위산경책>에 나타난 ‘대홍사조 사문 수수(大洪嗣祖 守遂 禪師)’라는 명칭은 소흥 5년 이후여야 가능하며, 그가 입적할 때까지 대홍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은 그 이전에 주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음의 사료는 수수의 주석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불조삼경」에는 <위산경책>의 앞에 장수(張銖)라는 인물이 쓴 <주위산경책서(注滄山警策序)>라는 서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湖北金石志> 卷11 大洪山遂禪師塔銘.

“刊華嚴 遺教諸經集傳 注解四十二章 遺教經 滄山警策 有語錄偈頌”

12) <補續高僧傳> 卷9 守遂傳.

“… 紹興乙卯 宣撫司命居大洪 學子望山而歸 極一時之盛 師亦誨人無倦 至丁卯三月 示疾而化 …”

(위산경책은) 배우는 자가 매양 그 글자가 비록 분명하여도 그 뜻은 궁구하기 어려운 것을 근심하였다. 글자에는 어그러짐이 있어서 오랫동안 능히 판별하지 못하였다. 큰 인물이 있지 않았으면 그 뜻을 펴서 그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겠는가? 대홍정업선사(수수)는 선학이 세상에서 뛰어나, 매양 겨를이 있으면 글을 썼다. (수수는) 자기를 편안히 거처하게 하지 않았는데, 배우는 이들이 거듭 칭하였다. 마침내 (수수가) 주해를 하여 그 뜻이 밝고 명백해졌다. … 내가 그 뜻이 기뻐서 서를 써서 편수에 엮는다. 소흥 9년 12월 낮 삼가 서를 쓰다.<sup>13)</sup>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서문을 쓴 시기는 소흥 9년(1139)으로 나타난다. 즉 <위산경책>의 주석은 소흥 5년에서 소흥 9년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서문에서는 수수가 <위산경책>에 관해서 주석을 한 내용만 등장하며, 「불조삼경」 또는 나머지 두 경전인 <불조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근거들에 의하면, <불조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은 수수가 봉산(鳳山)에 머물렀을 때, <위산경책>은 대홍산(大洪山)에 머물렀을 때 각각 주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수수는 세 경전을 한 번에 주석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수수가 세 경전이 한 책을 이루고 있는 「불조삼경」이 아닌,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을 먼저 접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두 경전은 부처의 처음과 마지막 설법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간행이 이루어졌다. 두 경전은 「개보칙판대장경(開寶勅版大藏經)」에 입장(入藏)되어 있으며, 송 진종(眞宗, 968~1022)의 명에 의하여 천희(天禧) 3년(1019)에 두 경전을 주석하여 입장하고 반포하게 하였다.<sup>14)</sup> 진종이 다른 경전을 언급하지 않고 두 경전을 간행하여 대장경에 넣어서 반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두 경전이 밀접한 의미를

13) <佛祖三經> 注瀉山警策序.

“學者每患其辭雖顯而其義則難窮 字有舛錯 而久未能辯 不有宗師大匠 安能發揚其義 而校正其舛錯乎 大洪淨嚴禪師 禪學冠世 每因暇日游戲筆硯 已未安居因學者請益 遂爲之註解 其義坦然明白 … 余嘉其志 輒爲之序 而冠于篇首 紹興九年十二月旦日謹序”

14) <古今圖書集成> 釋教部彙考 卷3.

“… 天禧三年譯經三藏法護等請 以御注四十二章經 御注遺教經 入藏頒行 …”

하지만 진종의 주석본은 대장경에 입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 전해지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씨보문당서목(晁氏寶文堂書目)』의 ‘불장(佛藏)’부분에 진종이 주석한 <주유교경>의 기록[宋眞宗註遺教經]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두 경전은 함께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시에 수수는 이 두 경전을 함께 접했을 것인데, 특히 당시 송의 황제였던 진종이 주석한 판본을 접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불조삼경』의 <불유교경> 앞에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이라는 일종의 서문을 수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도 이해가능하다. 당시에는 <당태종불유교경시행칙(唐太宗佛遺教經施行勅)>이라는 글 또한 존재하였는데, 이 글이 있음에도 진종의 <주유교경> 서문을 수록한 것은 분명 수수가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것이며 진종의 주석본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수는 진종이 주석하고 간행한 두 경전 <주사십이장경>과 <주유교경>을 우선적으로 봉산에서 침삭 및 주석하였고, 그 이후에 <위산경책>은 대흥산에서 주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몽산이 쓴 『불조삼경』의 서문을 보면 위와 상반되는 근거가 있다.

총림(叢林) 중에 <사십이장경>, <유교경>, <위산경책>으로써 『불조삼경』이라고 일컫는데 능히 한 번 보고도 눈앞에 만난 사람은 다생을 겪지 않고 성불하여 조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화연간에 수수선사가 직접 주를 단 심의(深義)를 얻어서 초학자라 하더라도 묘한 뜻을 쉽게 통달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도에 뜻이 있는 이들이 힘을 덜게 된 게 매우 컸으니 향을 품지 않고도[깊이 마음을 모으지 않고도] 불조를 볼 수 있었고 움직이지 않고도[도인을 찾아다니려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고도] 깨달음의 도량에 오를 수 있었다. 지금 정산혜대사(靜山慧大師)가 옷소매를 거두고 재화를 마련해서 오나라 휴휴암(休休庵)에서 인쇄하여 그로써 널리 전하였으니 기특하다.<sup>15)</sup>

여기서는 살펴보면 <사십이장경>과 <유교경>, 그리고 <위산경책>을 『불조삼경』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를 선화연간에 수수가 주를 행했다고 몽산은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근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선화연간(1119~1125)에 수수가 주를 행했다는 기록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수가 <위산경책>을 주석한 것이 소흥 5년에서 소흥

15) <佛祖三經> 序文.

“... 叢林中以四十二章經 遺教經 滄山警策 謂之佛祖三經 能一覽而直前者不歷多生 便可成佛作祖 宣和間 又得遂禪師直註深義 初學易通妙矣哉 自此有志於道者 省力甚多 不壞香而見佛祖 不動步而登覺場 今靜山慧大師 抽衣資錢 梓于吳中休休庵 以廣其傳奇哉...”

9년(1135~1139) 사이이기 때문에 위의 시기는 맞지 않다. 만약 수수가 선화연간에 주석하였다면 그것은 앞의 두 경전인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일 것이다. 또한 위의 서문을 통해서 몽산은 수수가 주석하여 전해오던 「불조삼경」을 구했고, 그리고 그 책을 간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불조삼경」은 몽산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적어도 「불조삼경」이라는 명칭은 수수 이전에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한 책으로 체계를 갖춰서 간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수수에 의한 「불조삼경」 이후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현존하는 형태의 「불조삼경」은 수수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그것을 몽산이 서문을 쓰고 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불조삼경」의 저본관계 분석

앞에서 수수에 의해서 「불조삼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수수는 어떠한 경전에 근거하여 직접 주석하고 「불조삼경」에 편입시켰을까? 「불조삼경」의 저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전의 종수는 다양하다. 부처의 설법인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은 현존하는 종수가 많은데, 특히 <불설사십이장경>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경전들 간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한편, <위산경책>은 종수가 다양하지는 않은데 저자인 위산의 생몰년과 가까운 시기의 돈황사경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가 「불조삼경」을 구성했을 때,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은 어떠한 경전을 선택하여 주석하였는지 <위산경책>은 주석할 당시의 경전과 이전의 경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수는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의 주석 작업을 이룬 시기에 함께 행하였기 때문에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던 경전을 선택하여 주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짝을 이루고 있었을 경전으로는 「초조대장경」에 영향을 준 「개보직판대장경」과 진종이 주를 단 두 경전이 있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수는 송의 진종이 주석한 <주사십이장경>과 <주유교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수수가 『불조삼경』의 두 경전인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을 주석한 것의 저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조대장경』과 진종의 주석본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진종의 주석본은 <주사십이장경>만 남아 있으며, <주유교경>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가 주석을 한 두 경전과 영향관계를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sup>16)</sup> <불설사십이장경>과 달리 <불유교경>은 당대의 돈황사경이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진종의 주석본은 <주사십이장경>과 비교하고, <불유교경>은 『초조대장경』과 돈황사경본을 함께 비교해보고자 한다. <위산경책>은 당대의 돈황사경이 있기 때문에 위산이 <위산경책>을 지은 시기와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판본들보다 돈황사경본이 시기상 정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이유에서, 수수가 주석한 <위산경책>이 돈황사경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머지 두 경전과 비교하고자 하는 『불조삼경』은 공민왕 10년(1361)에 전주(全州) 원암사(圓菴寺)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비교방법은 원문을 대조하여서 판본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sup>17)</sup>

### 3.1 <불설사십이장경>

먼저 수수가 주석한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과 『초조대장경』 및 진종

16) 앞의 <晁氏寶文堂書目>에서 확인하였듯이 진종의 주석본인 <주유교경>은 명대까지 보인다.

17) 원문의 확인은 현존본의 사진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은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시스템(<http://kb.sutra.re.kr/ritk/index.do>)에서 제공하는 원문을 기반으로 하였고, 진종의 주석본은 CBETA 中華電子佛典協會(<http://www.cbeta.org>)에서 제공하는 사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돈황사경은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시스템(<http://kb.sutra.re.kr/ritk/index.do>)에서 제공하는 원문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불조삼경주』의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은 1341년이지만, 원문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361년 본을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불조삼경주』의 형태로 나온 계통의 본문은 이체자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침삭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가장 이른 1361년의 판본을 기준으로 잡아도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본의 대조를 위해서 이체자는 정자로 표기하였고, 글자의 차이와 새로운 내용의 침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佛祖三經」의 성립과 저본에 관한 고찰

의 주석본 <주사십이장경>을 비교해 보았고 이에 따른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경전은 상호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불설사십이장경」의 내용 흐름 비교

初雕大藏經	注四十二章經	佛祖三經
서분	서분 상호 대응	
1장	1장	1장
×		2장
2~4장	2~4장	3~5장
5장	5장	×
×	×	6장
6~7장	6~7장	7~8장
8장	8장	9장 + 10장
9~11장	9~11장	11~13장
12장	12장	14장 + 15장
13~16장	13~16장	16~19장
17장	17장	×
18~29장	18~29장	20~31장
30장	30장	×
31~32장	31~32장	32~33장
33장	33장	34장 + 35장
34장	34장	35장
35장	35장	×
36~39장	36~39장	36~39장
40장	40장	×
41장	41장	40장 + 41장
42장	42장	42장

경전의 대교는 전체적인 면과 부분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세 경전의 가장 큰 차이는 내용적인 흐름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같은 42장의 부처의 설법에서도 42장의 내용이 전부 대응하지는 않는다. 초반부의 경우는 진종의 <주사십이장경>과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이 유사한 흐름을 가지지만 대부분은 「초조대장경」의 <불설사십이장경>과 <주사십이장경>이 유사한 흐름을 가진다.

앞의 표와 같이 세 판본의 <불설사십이장경>은 상호 대응하고 있다. 다만, 위의 표에서 대응하는 각 장의 본문이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니다. 본문이 동일할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상호 첨삭 등 세부적인 차이가 보인다.

경전의 앞부분은 본문이 시작되기 전 서분(序分)이 나오는데, 서분은 『초조대장경』의 <불설사십이장경>이 나머지 두 판본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초조대장경』에서는 <불설사십이장경>이 최초의 한역 경전으로 인식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서분의 내용은 경전의 한역 과정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주사십이장경>과 『불조삼경』의 경우에는 경전의 한역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부처의 최초 설법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본격적인 설법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적·공간적·상황적 배경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불조삼경』의 1장과 2장은 <주사십이장경>의 1장과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초조대장경』에는 『불조삼경』의 2장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앞의 <표 2>와 같이 대응한다. 『초조대장경』과 <주사십이장경>의 5장, 17장, 30장, 35장, 40장은 『불조삼경』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불조삼경』에서의 6장은 나머지 두 판본에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나머지 두 판본에서 한 장으로 설법을 구성하고 있는 8장, 12장, 33장, 41장은 『불조삼경』에서 9장과 10장, 14장과 15장, 34장과 35장, 40장과 41장으로 두 장이 한 번에 묶여서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42장이 다시 『초조대장경』에는 대응하지 않고 있으나 <주사십이장경>과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이 유사하게 대응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초조대장경』과 진종의 <주사십이장경>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수수가 주석을 한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은 유사한 부분보다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더 많았다. 완전히 세 판본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초조대장경』과 <주사십이장경>이 같은 뜻의 글자가 다르게 쓰였거나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5장, 8장, 11장, 12장, 14장, 15장, 18장, 22장, 24장, 27장, 37장이었으며, 두 판본이 완전히 같은 경우는 17장, 19장, 20장, 21장, 23장, 25장, 26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8장, 39장, 40장, 41장이다. 즉 『초조대장경』과 <주사십이장경>은 서로 같은 부분이 27장으로 42장 중 상당

수가 동등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이는 <주사십이장경>이 「초조대장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다.

「불조삼경」은 위의 표와 같이 몇 장의 새로운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두 판본과 세부 주제면에서 거의 대응하고 있으며, 3장, 8장, 20장, 24장, 26장, 28장, 30장, 37장, 38장은 내용이 거의 같거나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불조삼경」은 「초조대장경」과는 독자적으로는 같은 것이 없지만 <주사십이장경>과는 서분, 1장과 2장, 12장, 그리고 42장이 같거나 거의 흡사하다. 이는 「불조삼경」이 <주사십이장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부분도 있으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특히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은 나머지 두 판본에 비해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수 보인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몇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먼저 「초조대장경」과 <주사십이장경>이 상호 일치하는 장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다. 두 경전은 동일한 부분이 전체 경전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와 동등하게 대응하지 않는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은 앞의 두 경전에 비해서 침삭이 가해지면서 세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에는 앞의 두 판본의 내용에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경우와 두 판본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 2> <불설사십이장경>의 저본 관계 비교 1

初雕大藏經	注四十二章經	佛祖三經
19. 佛言, 人隨情欲, 求華名, 譬如燒香, 衆人聞其香然, 香以薰自燒. 愚者貪流俗之名譽, 不守道眞, 華名危己之禍. 其悔在後時.	19. 佛言, 人隨情欲, 求花名, 譬如燒香, 衆人聞其香然, 香以薰自燒. 愚者貪流俗之名譽, 不守道眞, 花名危己之禍. 其悔在後時.	21. 佛言, 人隨情欲, 求於聲名, 聲名顯著, 身已故矣. 貪世常名, 而不學道枉功勞形. 譬如燒香, 雖人聞香, 香之熾矣, 危身之火而在其後.
23. 佛言, 愛欲之於人, 猶執炬火, 逆風而行, 愚者不釋炬, 必有燒手之患. 貪姪, 恚怒, 愚癡之毒, 處在人身, 不早以道除斯禍者, 必有危殃. 猶愚貪執炬自燒其手也.	23. 佛言, 愛欲之於人, 猶執炬火, 逆風而行, 愚者不釋炬, 必有燒手之患. 貪姪, 恚怒, 愚癡之毒, 處在人身, 不早以道除斯禍者, 必有危殃. 猶愚貪執炬自燒其手也.	25. 佛言, 愛欲之人, 猶如執炬, 逆風而行, 必有燒手之患.

앞의 「초조대장경」과 <주사십이장경>의 19장과 「불조삼경」의 21장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명예에[名] 대하여 설법을 하며 향을 태우는 것[譬如燒香]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불조삼경」은 비유 앞에 설명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聲名顯著 身已故矣 貪世常名 而不學道枉功勞形] 또한 23장과 25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애욕에[愛欲] 대해서 설법을 하며 햇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에 대해서 비유에 들고 있는데[猶如執炬 逆風而行] 앞의 두 판본에서는 이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불조삼경」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삭제되어 있다.

<표 3> <불설사십이장경>의 저본 관계 비교 2

初雕大藏經	注四十二章經	佛祖三經
13. 佛言, 人懷愛欲, 不見道, 譬如濁水, 以五彩投其中, 致力攪之, 衆人共臨水上, 無能睹其影者. 愛欲交錯, 心中爲濁, 故不見道. 水澄穢除, 清淨無垢, 卽自見形. 猛火著釜下, 中水踊躍, 以布覆上, 衆生照臨, 亦無睹其影者. 心中本有三毒, 涌沸在內, 五蓋覆外, 終不見道. 要心垢盡, 乃知魂靈所從來, 生死所趣向, 諸佛國土道德所在耳.	13. 佛言, 人懷愛欲, 不見道者, 譬如濁水, 以五彩投其中, 致力攪之, 衆人共臨水上, 無能觀其影. 愛欲交錯, 心中爲濁, 故不見道. 若人漸解穢悔, 來近知識, 水澄穢除, 清淨無垢, 卽自見形. 猛火著釜下, 中水踊躍, 以布覆上, 衆生照臨, 亦無觀其影者. 心中本有三毒, 湧沸在內, 五蓋覆外, 終不見道. 惡心垢盡, 乃知魂靈所從來, 生死所趣向, 諸佛國土道德所在耳.	16. 佛言, 人懷愛欲, 不見道者, 譬如澄水, 致手攪之, 衆人共臨, 無有觀其影者. 人以愛欲交錯, 心中濁興, 故不見道. 汝等沙門, 當捨愛欲, 愛欲垢盡, 道可見矣.

「초조대장경」본이 <주사십이장경>에 이르면 첨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고 「불조삼경」에 이르면 이와 관계없이 변화되는 부분이 삭제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경우도 보인다.

위의 경우는 세 판본 모두 부처가 애욕을 품어 도를 보지 못하는 것에[人懷愛欲 不見道者] 대하여 설법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물의 흐림을[譬如濁水/澄水]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 이 공통적인 비유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보인다. 앞의 두 판본은 흐린 물에 채색을 넣어서 손으로 휘젓는 것을[譬如濁水 以五彩投其中 致力攪之 衆人共臨水上 無能睹其影者] 통해서 설법을 행하고, 「불조삼경」

은 채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맑은 물에 손을 넣어 휘저은 것을[譬如澄水致手攪之 衆人共臨 無有覩其影者]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같은 비유의 내용이지만 「불조삼경」이 보다 간략화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비유 뒤에 <주사십이장경>에는 설명이[若人漸解懺悔 來近知識] 덧붙여 있다.

공통적인 비유 뒤에 심화 정도의 차이가 보인다. 「초조대장경」과 <주사십이장경>은 공통적인 비유 이외에 불을 지피는 것을[猛火蒼釜下 中水踊躍]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불조삼경」은 공통적인 비유 다음에 바로 사문들에게 부처가 직접적인 설교를 행하는 것으로[汝等沙門 當捨愛欲 愛欲垢盡 道可見矣] 마무리를 짓고 있다. 여기서 「불조삼경」에는 <주사십이장경>에 나타나는 설명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초조대장경」에서의 내용은 소략한데 <주사십이장경>에서는 대량 첨가가 되고, 그것을 거의 그대로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에서 받아들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초조대장경」보다는 <주사십이장경>이 「불조삼경」에 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부분은 처음 <주사십이장경> 1장과 「불조삼경」의 1장과 2장, 10장과 12장, 가장 마지막의 42장이 상호 대응된다. 특히 「불조삼경」에서 처음과 가장 마지막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초조대장경」보다는 <주사십이장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다.

<표 4> <불설사십이장경>의 저본 관계 비교 3

初雕大藏經	注四十二章經	佛祖三經
10. 佛言, 天下有五難, 貧窮布施難, 豪貴學道難, 制命不死難, 得睹佛經難, 生值佛世難.	10. 佛言, 天下有二十難. 貧窮布施難, 豪貴學道難, 判命不死難, 得覩佛經難, 生值佛世難, 忍色離欲難, 見好不求難, 有勢不臨難, 被辱不瞋難, 觸事無心難, 廣學博究難, 不輕未學難, 除滅我慢難, 會善知識難, 見性學道難, 對境不動難, 善解方便難, 隨化度人難, 心行平等難, 不說是非難.	12. 佛言, 人有二十難. 貧窮布施難, 豪貴學道難, 棄命必死難, 得覩佛經難, 生值佛世難, 忍色忍欲難, 見好不求難, 被辱不瞋難, 有勢不臨難, 觸事無心難, 廣學博究難, 除滅我慢難, 不輕未學難, 心行平等難, 不說是非難, 會善知識難, 見性學道難, 隨化度人難, 觀境不動難, 善解方便難.

앞의 부분은 실행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법하고 있다. 『초조대장경』에서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주사십이장경>과 『불조삼경』에는 스무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초조대장경』과 <주사십이장경>에는 천하의 어려움[天下有五/二十難]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불조삼경』에서는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이라고[人有二十難] 표현하고 있다. 즉 이 부분은 <주사십이장경>이 『초조대장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뒤의 부분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불조삼경』 또한 <주사십이장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부의 표현이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세 판본을 비교해 본 결과 『초조대장경』은 진종의 주석본 <주사십이장경>과 상호 같은 부분이 많았으나,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과는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다. 다만 다양한 형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음이 드러난다.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은 『초조대장경』보다는 <주사십이장경>과 더 많은 영향관계에 있었다. 서분과 1장, 12장, 그리고 42장이 상호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 밖에는 완전히 일치하기 보다는 첨가와 삭제가 있었다. 따라서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은 진종의 <주사십이장경>의 영향을 받았는데, 현존하지는 않는 다른 판본의 <불설사십이장경>의 영향 또는, 수수가 임의로 첨삭을 가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3.2 <불유교경>

<불유교경>은 『초조대장경』의 판본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재조대장경(再調大藏經)』의 판본을 통해서 비교를 해야 했다. 하지만 복원된 『초조대장경』의 목록을 통해서 <불유교경>이 입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sup>18)</sup> 『재조대장경』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사십이장경>과 달리 진종의 <주유교경>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원문을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초조대장경』보

18) 鄭泌謨, 『高麗佛典 目錄 研究』(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90쪽에 의하면 『초조대장경』 복원 목록의 羔 函에 <불유교경>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른 시기의 돈황사경본 <불유교경> 상당수가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불유교경>은 「재조대장경」본과 돈황사경본, 그리고 「불조삼경」을 함께 비교하여 세 경전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돈황사경은 원문이 상당수 훼손되었으며, 필사시기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서 정확한 필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경은 한 종이 있으며,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도 한 종이 있다.

우선 정확한 필사시기가 확인되는 사경<sup>19)</sup>은 말기에 ‘龍朔二年(662)…’의 필사시기가 있다. 하지만 전반부가 거의 훼손되고 현존하는 사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경의 원문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간행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추정이 가능하고,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사경<sup>20)</sup>이 있는데, 이는 <불설대승도간경(佛說大乘稻竿經)>, <보현보살행원왕경(普賢菩薩行願王經)>, <대승사법경(大乘四法經)>과 함께 마지막에 <불유교경>이 필사되어 있다. 말기에는 ‘大番國沙州永壽寺律師…’라는 기록이 있다. 대번국은 당대에 있었던 국가이며, Stein본 796호의 「장자(莊子)」의 말기에 ‘乙巳年三月廿一日大番國沙州寺永壽寺僧法原寫畢’의 필사기중 ‘乙巳’를 82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sup>21)</sup> 대번국의 같은 절에서 사경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필사 시기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형태의 <불유교경>을 비교해 보았는데, <불설사십이장경>과는 달리 세 경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같은 뜻의 다른 글자나, 해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글자의 가감이 나타나고 있는 정도였다. 서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없었으며 도중에 한 부분에서 차이가 보인다. 「불조삼경」의 <불유교경>에서 부처가 설법을 하면서 비유를 드는 부분인데 비유를 구체적으로 들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내용의 흐름상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설법을 이해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첨가로 여겨진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 돈황사경 <遺教經> Stein본 4656호.

20) 돈황사경 <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 北京本 0469호.

21) 楊思范, “敦煌本《莊子》殘卷叙錄,” 『敦煌研究』 1期(2007), 11.

<표 5> <불유교경>의 저본 관계 비교

돈황사경본	再調大藏經	佛祖三經
3. 汝等比丘, 以能住戒. 當制五根, 勿令放逸, 入於五欲. 譬如牧牛之人, 執杖視知, 不令縱逸. 犯人苗稼. … 是故汝等, 當好制心. 心之可畏, 甚於毒蛇, 惡獸, 怨賊, 大火, 越逸, 未足喻也. 動轉輕躁, 但觀於蜜, 不見蜜坑. … (후략)	3. 汝等比丘, 已能住戒. 當制五根, 勿令放逸, 入於五欲. 譬如牧牛之人, 執杖視之, 不令縱逸, 犯人苗稼. … 是故汝等, 當好制心. 心之可畏, 甚於毒蛇, 惡獸, 怨賊, 大火, 越逸, 未足喻也. 動轉輕躁, 但觀於蜜, 不見深坑. … (후략)	3. 汝等比丘, 已能住戒. 當制五根, 勿令放逸, 入於五欲. 譬如牧牛之人, 執杖視之, 不令縱逸. 犯人苗稼. … 是故汝等, 當好制心. 心之可畏, 甚於毒蛇, 惡獸, 怨賊, 大火, 越逸, 未足喻也. 譬如有人, 手執蜜器, 動轉輕躁, 但觀於蜜, 不見深坑. … (후략)

위는 부처가 제자들에게 오근(五根)에 대하여 설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상호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불조삼경』에서는 문장이 새롭게 구성되어 있다. 다른 두 경전에서는 ‘가벼이 날뛰면서 다만 꿀만 본다’[動轉輕躁 但觀於蜜]라는 설법에 『불조삼경』에서는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꿀이 담긴 그릇을 손으로 잡고’[譬如有人 手執蜜器]라는 문장을 추가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위와 같이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한 부분 밖에 없다. 그리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체자의 사용 또는 글자의 차이가 있으나 <불설사십이장경>과 같이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으며, 글자도 거의 같은 뜻의 다른 글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서 <불유교경>은 <불설사십이장경>과는 달리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며,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경전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지 않지만 진종의 주석본 <주유교경> 또한 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3.3 <위산경책>

위산 영우는 생몰시기가 771년~853년이다. 그 시기에 어록인 <위산경책>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 지은 <위산경책>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

에 어떠한 형태였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위산경책>은 「치문경훈」과 「불조삼경」을 통해서 널리 전해졌는데, 「치문경훈」은 승가의 경책과 훈계를 내용으로 하는 경전으로 어느 한 사람이 한 때에 저술한 것은 아니며 당 말에 「치림보훈(緇林寶訓)」이라는 경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sup>22)</sup> 그 안에 <위산경책>이 편성되어서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료가 없어서 정확한 경전의 유포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자 북간(淨慈 北磻, 1164~1246)의 「북간문집(北磻文集)」에 수록된 발문들 중에 <위산경책>의 발문이 있는 것을<sup>23)</sup> 통해서 <위산경책>이 「불조삼경」 이전에도 간행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료의 시기는 위산의 입적과 상당한 시기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 <위산경책>이 유포되었는지 살펴보기 힘든 면이 있다.

돈황사경 중에 <위산경책>을 찾을 수 있는데, 다만 이름이 <위산경책>이 아닌 <대위경책 언화상집(大滄警策 彦和尚集)><sup>24)</sup>으로 되어 있어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필사본 <대위경책언화상집>은 여러 종류의 글과 함께 점련이 되어 있는데, 전체 필사본의 말기에 ‘淸泰乙卯年(934)十一月十六日…’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서 <위산경책>이 당시에 ‘대위경책(大滄警策)’이라고도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산의 생몰시기인 771~853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 글은 시기상 원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원본에 가까운 돈황사경 <대위경책언화상집>과 수수가 주석을 한 <위산경책>을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치문경훈」의 판본 비교를 통해서 <위산경책>의 여러 판본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존하는 판본의 <위산경책>은 이체자 또는 같은 뜻의 다른 한자가 사용된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밖에 없지만,<sup>25)</sup> 돈황사경과 「불조삼경」의 <위산경책>은 같은 뜻의 글자가 대체되어 사용되었을 뿐만

22) 李智冠,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서울: 寶蓮閣, 1973), 39.

23) 「北磻文集」, “跋九峯了應滄山警策後”

24) 돈황사경 <大滄警策彦和尚集> Pelliot 4638호. 실제 사경에서의 제목은 ‘大滄警策 彦和尚集’으로 필사되어 있다.

2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版本對校 緇文」(서울: 조계종출판사, 2007), 23-35.

아니라 내용이 상호 다른 경우도 많이 보였다.

두 경전의 대교를 통해서 상호의 차이를 살펴보면, 같은 뜻 또는 같은 소리의 글자가 상호 다르게 쓰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같은 내용인 경우에도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 또는 상호 복합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아래의 비교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히 보인다. 순서는 글자의 출입이 있는 부분과 문장의 출입 및 앞 뒤 문장이 상호 결합되어 있는 경우로 제시하였다.

<표 6> <위산경책>의 저본 관계 비교 1

돈황사경본	佛祖三經
… 夫業繼受身, 未兌形累, 稟父母之遺體, 假衆緣而共成, 雖四大扶持, 常相違背, 無常老病, 口而人期, 朝有夕亡, 剎那異世, …	… 夫業繫受身, 未免形累, 稟父母之遺體, 假衆緣而共成, 雖乃四大扶持, 常相違背, 無常老病, 不與人期, 朝存夕亡, 剎那異世, …
… 心祈佛法棟樑, 用作後來龜鏡, 常以此心, 未曾省過, 出言步於稽古, 談說乃傍於典章, 挺特形儀, 意氣高閑, 住止必須擇伴, 時時聞於未聞, 遠行要假良朋, 數數清於耳目, …	… 心期佛法棟樑, 用作後來龜鏡, 常以如此, 未能少分相應, 出言須涉於典章, 談說乃傍於稽古, 形儀挺特, 意氣高閑, 遠行要假良朋, 數數清於耳目, 住止必須擇伴, 時時聞於未聞, …

돈황사경과 『불조삼경』의 <위산경책> 중에서 관심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위산경책>의 마지막에 보이는 운문인 명(銘)이다. 이 운문에서 상호 글자와 문장의 출입이 가장 많이 보인다. 돈황사경본에서는 운문의 글이 상당히 긴데 『불조삼경』에서는 길지 않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돈황사경본의 명에는 다른 글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돈황사경본에는 중국 선종(禪宗)의 제3대 조사(祖師)인 승찬(僧璨, ?~606)이 지은 <신심명(信心銘)>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 글 또한 위산이 지은 운문과 마찬가지로 사언절구(四言絕句)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산경책>의 마지막에 함께 구성되어 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위산경책>의 저본 관계 비교 2

돈황사경본	佛祖三經
<p>… 乃爲銘曰：幻身夢宅，空中物色，前際無窮，後際難廻。… 研窮法理，以悟爲則，心境俱捐，莫記莫憶。六根悟然，行坐默寂，見性清淨，無濁無辱，隨朝二□，信心信銘。[至道無難，維嫌揀擇。早莫憎愛，洞然明白。毫釐百差，天地玄隔。… □有是非，紛然失心。二由一有，一亦莫守。一心不生，萬法無咎。無咎無法，不生不心。能隨境滅，境逐能沈。境由能境，能由境能。… 究理窮極，不存軌則。啓心平等，所作俱息。狐疑淨盡，正信調直。一切不留，無可記憶。… 言語道斷，非去來今。]</p>	<p>… 乃爲銘曰：幻身夢宅，空中物色，前際無窮，後際寧廻。… 研窮法理，以悟爲則，心境俱捐，莫記莫憶。六根怡然，行住寂默，一心不生，萬法俱息。</p>

이 부분을 살펴보면, 돈황사경 <위산경책>의 끝 부분에 [ ] 표시를 통해서 글 중에 <신심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조삼경」의 <위산경책>과 함께 살펴볼 때 <신심명>의 한 부분이 「불조삼경」의 <위산경책>에 사용되었음이 보인다. <위산경책>의 마지막 문장인 ‘一心不生 萬法俱息’은 <신심명>의 표현이다.

특히 <신심명>에서는 ‘一心不生’이라는 문장이 도중에 나오며, 그 뒤의 ‘萬法無咎’로 진행되고 계속 문장이 이어지다가 ‘所作俱息’의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불조삼경」의 ‘萬法俱息’은 <신심명>의 문장 중에서 일부를 축약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는 <신심명>이 <위산경책>의 한 부분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조삼경」의 <위산경책> 마지막 운문의 한 부분이 <신심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돈황사경의 <위산경책>에서 마지막에 필사자가 <신심명>을 옮겨 썼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불조삼경」의 <위산경책>은 돈황사경본 <위산경책>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위산이 지은 이후에 <위산경책>은 후대에 변화를 겪은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경전 후반의 명(銘) 부분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후대의 <위산경책>이 경전에 포함되어 있던 <신심명>을 삭제하면서 한 부분을 임의로 차용하여 글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 4. 결 론

이상에서와 같이 『불조삼경』의 성립과 저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불조삼경』의 성립에 관해서는 그간의 견해가 다양하여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본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여 『불조삼경』의 성립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불조삼경』 판본에 나타나는 정보 및 관련 사료들을 통해서 성립의 시기 및 배경에 관해서 추론하고, 구성경전인 세 경전의 저본관계를 비교함으로써 『불조삼경』의 성립에 대해 접근하였다.

『불조삼경』의 현존하는 판본은 후대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수수가 주석하고 몽산이 서문을 쓰고 간행한 판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불조삼경』의 체제를 마련한 것은 수수에 의해서였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것은 수수가 선화연간(1119~1125)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은 봉산에서 주석을 하였고, 소흥 5년에서 소흥 9년(1135~1139) 사이에 <위산경책>을 대흥산에서 주석을 했다는 것은 세 경전이 한 책을 이루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위산경책>의 서문에 다른 두 경전과 『불조삼경』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과 몽산의 서문에 수수의 주석본인 『불조삼경』을 몽산이 간행했다는 것 등의 기록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불조삼경』은 수수가 주석을 하게 되면서 그 체제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수수는 송 진종이 주석한 <주사십이장경>과 <주유교경>의 영향을 받아 주석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았다. 이는 진종의 명에 의해서 두 경전을 주석하고 입장하였다는 기록과 『불조삼경』에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이라는 글이 있는 것을 통해서 추론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판본의 대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불조삼경』은 세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경전이 어떠한 경전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이 되었는지 실질적인 원문의 비교를 해보았다. 『불조삼경』의

26) 언제 누구의 편집으로 지금의 <위산경책>이 이루어졌는지는 사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으며 후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 경전 중에서 <불설사십이장경>은 「초조대장경」과 <주사십이장경>, <불유교경>은 「재조대장경」과 돈황사경, <위산경책>은 돈황사경인 <대위경책언화상집>과 각각 대교하였다. 그 결과, 「불조삼경」의 <불설사십이장경>은 <주사십이장경>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불유교경>은 현존하는 경전이 상호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본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위산경책>은 수수가 주석을 한 부분이 당대의 돈황사경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돈황사경인 <대위경책언화상집>에는 후반부의 명(銘)에 승찬이 지은 <신심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불조삼경」에서는 이를 축약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수수가 주석한 <위산경책>은 정본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 「불조삼경」의 성립과 저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돈황사경인 <대위경책언화상집>에 <신심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존하지 않으나 「불조삼경」의 저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종들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 <참고문헌>

「古今圖書集成」.

「補續高僧傳」.

「佛祖三經」.

「初調大藏經」.

「再調大藏經」.

「晁氏寶文堂書目」.

「湖北金石志」.

돈황사경 「遺教經」 Stein본 4656호.

돈황사경 「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 北京本 0469호.

돈황사경 『大滄警策彥和尚集』 Pelliot 4638호.

簡基益. “《四十二章經》의 문獻與義理研究.” 碩士學位論文. 臺灣 南華大學宗  
教學研究所. 2008.

駒澤大學內 禪學大辭典 編纂所 編. 『(新版)禪學大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96.

金斗燦. “佛說四十二章經의 口訣에 대하여.” 『국어학』 18호(1989).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版本對校 緇文』.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7.

楊思范. “敦煌本《庄子》殘卷叙錄.” 『敦煌研究』 1期(2007).

椎名宏雄. “『仏祖三經註』の成立と諸本.” 『印度學佛教學研究』 第47卷(1998).

椎名宏雄. 『宋元版書籍の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1993.

이상백. “『佛祖三經』의 간행과 판본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석사논문. 한국학중  
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2.

李智冠.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寶蓮閣, 1973.

鄭泌謨. 『高麗佛典 目錄 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조은정. “흑석사 소장 백지묵서 『불조삼경합부』 사경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조현환. “寶林傳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허홍식.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몽산덕이』. 과주: 창비, 2008.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시스템(<http://kb.sutra.re.kr/ritk/index.do>).

중국기본고적고(PC 설치 프로그램).

한글대장경검색시스템([http://ebt.dongguk.ac.kr/h\\_tripitaka/main.html](http://ebt.dongguk.ac.kr/h_tripitaka/main.html)).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http://buddha.dongguk.edu>).

CBETA 中華電子佛典協會(<http://www.cbeta.org>).